



○신라말 무염국사가 구산선문 중에서도 가장 번창했던 성주산문을 열었던 성주사지. 지금은 무염국사 부도비와 3기의 삼층석탑만이 자리를 지키고 있다.



◇장곡사 상대웅전에서 스님의 지도아래 참선에 든 답사객들.

남해 무염국사

845년 성주산문 개창

신라 29대 태종무열왕의 8대손이며, 어려서부터 글을 익혀 9세 때에는 '해동신종(海東神童)'이라는 아호를 받았다. 10세에 출가에 실악산 오색석사(五色石寺)의 법성선사 아래서 공부했으며, 이때부터 선과 인연을 맺었다. 그 후 영주 부석사로 옮겨 화엄학을 공부하는 등 선교를 두루 섭렵했다. 845년 성주산문을 개창, 본산으로 삼아 40여년동안 교화에 몰두했으며, 문성·현안·경문·현강·정강·진성여왕 등 여섯 왕이 모두 무염국사를 정해 법을 물었을 정도로 존경을 받았다. 특히 이 산문은 선종의 입장에서 화엄을 융합하려는 사상을 띠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89세에 입적했으며 여염·대룡·심광·자인·승랑·현영 등 수많은 제자를 배출했다.

장곡사

상·하 대응전 두개 특징

조계종 제6교구본사 마곡사 말사로 850년(문성왕 12)에 보조선사가 창건한 사찰. 그 뒤 오랜 세월을 거치는 동안 많은 중건공사를 거쳤으나 자세한 연혁은 전해지지 않고 있다. 경사지를 닦아 위아래에 절터를 만들었는데, 아래에는 문학루·대웅전·요사채 등이 있고, 이곳에서 50m 가량 올라간 곳에 다시 대웅전과 동진전이 있다. 대웅전이 둘 있는 것은 다른 절에서는 볼 수 없는 장곡사의 특징이다. 상대웅전(보물 제162호)과 하대웅전(보물 제181호)은 각각 동남향과 서남향을 향하고 있어 건축사상으로도 주목받고 있다. 상대웅전 안에는 통일신라 때 조성된 철조약사여래좌상부석조대좌(국보 제58호)가 있으며, 하대웅전(보물 제181호) 안에는 금동약사여래좌상(보물 제337호)이 봉안돼 있다.

무량사

김시습부도·초상보존

부여 외산면 민수산 기슭에 자리잡은 무량사 역시 마곡사 말사. 신라말에 법일국사가 창건해 여러 차례의 중건·중수를 거쳤으나 자세한 연대는 전하지 않는다. 다만 17세기 초에 대대적인 중창불사가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주전인 극락전과 그 안에 모셔진 아미타삼존불상은 17세기 전반의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다. 극락전(보물 제356호)과 잠중하면서 단아한 고려시대 오층석탑(보물 제185호)이 자리하고 있으며, 아울러 아담한 석등(보물 제233호)도 있다. 절문 앞에는 거대한 당간지주와 김시습(설장스님)의 부도가 있다. 1493년(성종 24) 김시습이 이곳에서 죽자 승려들이 그의 영각을 절 곁에 짓고 초상을 봉안하였다고 한다.

‘無舌土論’ 선법문 들리는듯...

광활하고도 적막한 땅. 늦가을 오후 햇살이 환히 비추지만 찬바람을 막을 벽 하나 없이 옛 영화를 역사 속에 묻어둔 곳 성주사지. 충청남도 보령군 미산면 성주리 성주사지는 그렇게 오늘을 맞고 있었다. 사지 한 가운데를 팔랑개울이 흐르고 있는 연인들. 그들은 이 땅이 그 옛날 선종(禪宗)을 크게 떨친 불교 역사의 큰 축이었음을 알고 있을까.

9천여명의 사지는 답사객들에게는 한눈에 언뜻 들어오지 않는 듯했다. 서한, 부여, 청양, 홍성을 병풍처럼 두른 성주사지의 역사는 백제시대대로 거슬러 올라간다.

이곳에 있었던 사찰 성주사는 선문구산의 하나인 성주산파의 중심사찰이다. (삼국사기)에 기록돼 있는 백제 법왕 때 창건된 오함사(烏含寺)가 이 사찰이라는 사실이 1960년부터 수습된 기와조각에서 확인되기도 했다.

신라 문성왕때 당나라에서 귀국한 무염국사(801~888)가 이 절을 중창하고 선종을 일으키자 왕이 성주사라는 이름을 내렸다. (송산성주사사적)에는 성주사의 규모를 불전 80칸, 영랑 800여칸, 수각(水閣) 7칸, 고사(庫舍) 50여칸으로 기록하였으니 거의 천여칸에 이른 엄청난 규모의 사찰이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한창 때의 성주사는 충청도는 물론 온 나라에서도 손꼽히는 절이었고 신라 하대 구산선문에서 가장 번창했던 일편으로 특히 이곳에서 선종을 떨친 무염국사의 문도는 2천여명에 이르렀으니 수도승들이 공양하느라 쌀을 씻은 드물이 성주천을 따라 십리나 흘러내렸다는 말이 전할 정도다.



11월 - 성주산문

한때 건물 천칸·스님 2천명 달해 무염국사비 옛모습 그대로 간직

이처럼 성주사는 성주산파의 총본산으로 크게 발전하였으나 임진왜란 때 전소된 뒤 중건되지 못하고 현재 폐사터만이 사적 제307호로 남게 되었다. 성주산문은 무염국사에 의해 개창됐다. 무염국사는 821년(헌덕왕 13)에 중국으로 들어가 마조의 제자인 마곡에게서 법을 전수받아 845년(문성왕 7)에 귀국해 성주산문을 열었다. 무염국사는 육조 해능·마조 도일·마곡 보철로 이어지는 법맥을 받았으니 선종의 정맥을 그대로 이은 셈이다. 이 산문은 나팔여초에 가장 번창했다. 무염국사는 '말에 얽매이거나 이론에 의지하지 않으며 공장 심법에 집입한다'는 '무설토론(無說土論) 혹은 無舌土論·선과 교의 토론'을 주창한 것으로 유명하다. 무염국사는 '교(敎)는 문무백관이 그 직책을 지키는 일이고, 선(禪)은 재물이 팔랑개울 끼고 침묵을 지키고 도 백성을 편안하게 하는 것이며, 순수한 조사(祖師)의 견지에서 무상(無相) 무위(無爲) 무전(無傳)이라야 선(禪)이

다'라고 주장했다. 교학 일색의 당시 불교계에 선의 중요성을 가르친 천책(天策)이 지은 <선문보장록>의 '무설토론'이라는 논설집에는 이같은 무염국사의 사상이 잘 나타나 있다. 제목이 말해주듯 선을 무설토(無舌土), 교를 우설토(有舌土)라고 간주한다. 언어에 매이지 말고 선을 통한 무한진여의 세계로 나아가야 함을 강조한 것이다. 성주사지에서 옛모습을 거의 그대로 간직하고 있는, 최치원이 비문을 지었다는 남해화상백일보광탑비(국보 제8호)는 5천여자에 달하는 장문으로 무염국사의 행적을 전하고 있다. 충남 청양 칠갑산에 소재한 장곡사(주지 대진), 주차장에서 내려 올라가는 길은 고즈넉한 고궁 돌담길을 돌아가듯 사뭇하고 한가롭다. 그래서 약사도량인가. 하늘과 맞닿은 듯한 맑은 기운, 이곳에서 단 며칠만이라도 머물 수 있다면... 규모가 크지는 않지만 아늑하고 운치있는 분위기 탓에 참배객들은

부처님 품안에 안긴 느낌을 받았으리라. 상대웅전에서 이곳 스님의 지도로 참선에 들어 무염국사의 무설토의 경지를 더듬어 본다. 장곡사에서 버스로 30분 이동해 찾은 곳은 무량사(주지 승일). 동양 최대의 불괴상인 아미타여래삼존상이 봉안돼 있는 사찰답게 시원한 느낌을 준다. 주지 승일스님이 극락전 앞에서 답사객들에게 사찰 유래와 특징을 곁들인 법문을 해주었다. "불교는 믿음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지혜가 없는 믿음은 맹신이고, 믿음없는 지혜는 사견입니다. 마한가지로 지혜가 갖출지 않는 자비는 참자비가 아니고요, 진실로 자기의 생각과 얘기를 할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지금은 덩그러니 터만 남은 성주사지를 둘러보며 답사객들은 진정한 믿음이란 무엇인가를 생각해야 했다.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 모든 것이 자기 것이 아니요, 믿음을 통해 지혜를 얻고 지혜로 믿음을 쌓아갈 때 본래 자기와 진실을 말할 수 있음을 깨달아야 하리라. 믿음과 지혜를 화두로 답사객들은 성주사에서 잠시 입정에 들었다. 글=한영우 기자 (mwhan@buddhapia.com) 사진=고영배기자 (ybg@buddhapia.com)



◇장곡사 상대웅전에 있는 철조약사여래좌상부석조대좌(국보 제58호)



◇무염국사의 행정이 기록된 남해화상백일보광탑비(국보 제8호). 최치원이 썼다고 전한다.

대한불교조계종

한마음선원 울산지원 상량식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라 자성을 발현하기 위해 열심히 정진하고 있는 경남 울산지역 불자님들의 수행 도량이 될 새법당을 건립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새로이 터를 잡아 주춧돌을 놓고 기둥을 세우는 뜻은 부처님과 역대조사 그리고 일체가 내 한마음의 나눔임을 일깨워 주시는 대행스님의 은혜에 조금이나마 보답하는 길이라 생각합니다.

이에 한마음선원 울산지원에서 대행 스님을 모시고 상량법회를 봉행하고자 하오니 뜻깊고 의미있는 법석에 많은 이들이 동참하여 부처님의 자비 광명속에 깊이 안락하기를 발원합니다.

울산지원 사부대중 삼배



한마음선원 울산지원 불시 신축 조감도

- 일시 : 불기 2543년 11월 28일 11:00
- 장소 : 울산광역시 북구 천곡동 한마음선원 울산지원
- ☎ 울산지원 : 052)244-0884 / FAX 052)244-0182
- 불사현장 : 052)282-5077

